

잘 나가는 '기아 K8 하이브리드'... 1리터로 18km 달린다

하이브리드 특화 클러스터 그래픽 통합형 고전압 배터리로 **차 중량 ↓**
높은 수준의 안전성·편의성 확보

기아가 올해 야심작 K8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

K8이 지난 3월 사전계약 첫째날 1만 8015대가 계약되며 흥행돌풍을 일으킨 만큼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업계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K8의 경쟁차량인 현대차 그랜저와 판매량도 주목받고 있다.

기아는 4월 K8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K8은 지난달 출시한 2.5가솔린, 3.5가솔린, 3.5LPI에 1.6터보 하이브리드를 추가해 총 4개 엔진 모델로 운영된다.

K8은 기존 K7 대비 전장(5015mm)을 20mm 늘려 5m를 넘겼고, 전폭(1875mm)도 5mm 늘렸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축거(휠베이스, 2895mm)는 40mm 늘려 뒷좌석의 편안함을 강화했다. 그랜저와 비교하면 전장은 15mm, 축거는 10mm 길



기아 K8 하이브리드.

고, 전폭은 동일하다. 특히 디자인적으로 그랜저가 덩치에 비해 콤팩트한 외양을 갖춘 반면, K8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모습을 가졌다.

K8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180PS(마력), 최대 토크 27.0kgf·m의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 출력 44.2kW, 최대 토크 26.4Nm의 구동모터, 6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하이브리드의 정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특히 1.6터

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전 K7 2.4하이브리드 엔진의 최고 출력(159PS)과 최대 토크(21.0kgf·m) 대비 약 13%, 29% 향상된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갖췄다.

또 구동모터의 효율을 높이고 12V 보조배터리 통합형 고전압 배터리 적용으로 차의 중량을 줄이는 등의 개선을 통해 K7 하이브리드(16.2km/L) 대비 약 11% 높은 복합연비 18.0km/L를 달성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은 2.4



기아 K8 하이브리드.

가솔린(복합연비 16.2km/L) 자연흡기 엔진 기반으로, 배기량은 그랜저가 더 높지만 연비와 동력성능은 K8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기아는 K8 하이브리드에 ▲하이브리드 전용 17인치 전면가공 휠 ▲후면부 하이브리드 엠블럼 ▲하이브리드 특화 클러스터 그래픽을 추가해 하이브리드의 개성을 더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

2),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탑재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

K8 하이브리드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랜저를 앞선다. 트림별 가격은 노블레스 라이트 3698만원, 노블레스 3929만원, 시그니처 4287만원이다. 반면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은 3812만원~4632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 K8 하이브리드는 저공해자동차 제2종으로 공영주차장(서울시 기준) 및 전국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K8 하이브리드는 높은 시장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로 준대형 하이브리드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토탈, 대산공장 핵심사업 증설 완료

2017년부터 추진 '초대형 프로젝트' 연간 40만톤 규모 생산능력 갖춰

한화토탈이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등 주요 제품 생산시설 증설을 완료하며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화토탈은 충남 대산공장에 폴리프로필렌 신규 공장 건설과 가스 전용 분해시설 증설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약 28개월간 진행된 이번 증설 프로젝트에는 총 5300억원이 투자됐다.

3800억원이 투자된 한화토탈의 신규 폴리프로필렌 공장은 연간 4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신규 공장 증설로 한화토탈은 기존 연간 72만톤에서 국내 최대인 연간 112만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폴리프로필렌은 프로필렌을 원료로 생산되는 합성수지로 전기전자소재, 자동차 내외장재, 각종 필름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식품용기, 포장재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원료로 사



한화토탈 폴리프로필렌 공장.

용되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소재다.

폴리프로필렌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소비와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소재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화토탈은 이번 폴리프로필렌 증설을 토대로 이러한 국내외 시장의 수요 증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한계 추진했던 가스 전용 분해시설 증설도 순조롭게 완료됐다. 한화토탈은 가스 전용 분해시설에 1500억원을 투자해 에틸렌 15만톤의 생산능력을 확충했다. 이번 증설로 한화토탈의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138만톤에서 153만톤으로 증가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쌍용C&E, 업계 첫 녹색채권 최고 인증등급

GB1·G1 등급 획득

쌍용C&E가 시멘트업계 최초로 녹색채권 최고 인증등급을 획득했다.

쌍용C&E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최고 인증등급인 'GB1'과 'G1'을 각각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시멘트업계에서 녹색채권 최고 등급을 받고, 채권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쌍용C&E가 처음이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ESG채권의 한 종류로, 인증 등급은 ▲조달 자금 사용처의 적합성 ▲프로젝트의 평가·선정 절차 ▲조달자금의 관리·사후보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진다.

쌍용C&E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채권은 사용자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BP)에 부합할 뿐만 아

니라 ESG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평가 프로세스 등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쌍용C&E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발행시기와 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해당 자금은 순환자원처리시설과 폐열발전설비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쌍용C&E는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 3월 사명을 '쌍용C&E'로 변경하고 새로운 경영비전인 'Green 2030'을 발표하는 등 ESG경영에 박차를 가해 종합환경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폐합성수지를 시멘트 연료로 활용하는 순환자원처리시설 확대를 통해 유엔탄 사용량 '0'(탈석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LG, 사이니지로 예술작품의 감동 전달

디지털 사이니지로 미디어아트 구현

LG 사이니지가 예술 작품까지 담아낸다.

LG전자는 오는 7월 11일까지 서울 롯데월드타워 7층 롯데뮤지엄에서 열리는 김정기 작가 작품 전시회 '디아터 사이드'에 디지털 사이니지로 미디어아트를 구현했다고 5일 밝혔다.

전시장은 입구 벽면에 55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어 붙인 6m 길이 비디오 월로 꾸며져 작가의 작품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전시에 사용된 LG 디지털 사이니지(모델명: 55SVH7F)는 화면 두께가 0.44밀리미터(mm)로 얇아 제품 연결 부분의 화면 이질감이 적다. 또한, 독자 화질 알고리즘으로 화면 전체에 균일한 색상을 보여줘 여러 장을 이어 붙여 대화면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다. 시야각도 넓어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색이 왜곡되지 않아 선명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

LG전자는 전시장 내에도 실제 작품과 나란히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했다. 관람객들은 작품 바로 옆 LG 디

지탈 사이니지 화면을 통해 '드로잉 마스터' 김정기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과정을 담은 영상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앞서 LG전자는 다양한 장소에 활용 가능한 맞춤형 사이니지 솔루션으로 예술 및 전시 분야와 지속 협력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잠실 롯데백화점 6층 아트홀에서 열린 '故 김환기 화백 작품 미디어 전시회'에 실내용 LED 사이니지(시리즈명: LAPE)를 설치했으며, 롯데월드타워 야외 공간에는 실외용 LED 사이니지(시리즈명: GSCD)를 이어 붙여 가로와 세로, 높이 6m 크기 미디어 큐브도 구현했다.

/김재용 기자 juk@

벤처協, 벤처기업 ESG 경영역량 강화 지원

나이스평가정보와 업무협약 체결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들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나이스평가정보와 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ESG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협약에는 ▲우수벤처 선정사업 'ESG 경영 부문' 평가 및 선정 지원 ▲벤처기업의 ESG 경영 인식확산 ▲벤처기업에 특화된 ESG 민간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공동개발 협력 등의 내용

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ESG 경영 역량강화와 인식확산을 위해 올해 우수벤처 선정사업에 'ESG 경영 부문'을 신설해 벤처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ESG 우수벤처기업도 선정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은 "최근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ESG 경영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혁신벤처기업도 경영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코로나로 경직된 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혁신기업군으로 부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